

서울시, 외자유치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매일경제 1999.09.18)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서울시, 외자유치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1999년 09월 17일 19:26

[조영행]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과 용산구 한남동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부근,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전시장 자리 등에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 3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여의도동 23번지 일대 3만 3050㎡와 한남동 727의 28번지 일대 1만 1589㎡, 대치동 514번지 학여울전시장내 3만 9087㎡ 등이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임대료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여의도와 학여울전시장의 경우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고 한강진역부근에는 호텔을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소득발생후 7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뒤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는 사업개시후 5년간은 완전 면제, 그뒤 3년간은 50%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며 출자를 위해 도입하는 자본 재는 관세와 특소세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임대까지 허용 하고

도로 운수시설 등 기반시설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능하면 3 곳을 모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다.

Copyright © 2007 매경인터넷(주) All Rights Reserved.